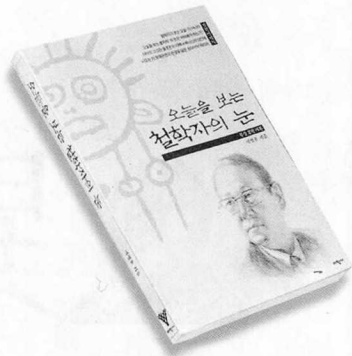


## 작고 평범함 중시하는 철학

《오늘을 보는 철학자의 눈》 펄먼 이영호 교수



흔히 철학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어느 그리스 철학자가 하늘만 쳐다보면서 사색에 빠졌다가 웅덩이에 빠지자 노예가 이를 비웃었다는 에피소드가 널리 알려질 정도다. 하지만 현실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방법만 다를 뿐 철학자는 대지에 발을 딛고 선 인간일 수밖에 없다. 성균관대 철학과 이영호 교수(61)는 최근 펄먼 《오늘을 보는 철학자의 눈》(이학사)에서 '오늘을 사는' 철학자의 자세를 보여준다.

“철학은 살아 움직이는 현실에 뿌리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철학은 현실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방법론적으로 현실에서 잠시 떠나지만 결국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부정철학 서론’을 주제로 단 이 책은 우리 시대와 함께 호흡했던 한 철학자의 성찰을 담은 에세이집이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아우르면서 ‘개판’의 한국정치를 독해하는 방법을 일깨우기도 하고 현대철학의 원류를 이룬 니체와 가상대담을 나누기도 한다. 복잡다단한 사건의 의미를 읽어내는 철학자의 시선에는 ‘부정철학’의 관점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부정철학은 작고 평범한 것을 중시하는 철학입니다. 인생을 어떤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 작고 평범한 것의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정철학은 ‘~을 해야 한다’는 정언명령보다는 ‘최소한 ~은 하면 안된다’는 사고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이런 부정철학의 사유는 니체와 후설로부터 자양분을 얻었다. 이교수는 니체로부터 출발했으나 점차 후설의 현상학으로 관심을 옮겨왔다. “후설의 현상학은 서양의 실증주의적 체계를 부정하고 생활세계를 중시했습니다. 근대의 과학주의는 사실의 미신에 빠져 삶의 의미를 없애버렸습니다.

후설은 이것이 서양정신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보고 ‘사태 자체로 돌아가라’고 외칩니다. 개별적인 것, 특수한 것에서 출발해 보편적인 것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교수는 철학적 글쓰기의 난해성으로 인해 철학이 삶과 멀어져버리는 현상을 우려한다. 이 난해성은 서양철학의 개념주의(보편주의)에서 비롯됐고 주제와 객체를 분리시킴으로써 자연을 대상화시키게 됐다고 본다.

“철학자가 일상의 현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글쓰기 양식을 바꿔야 합니다. 예컨대 니체는 생동하는 삶이 죽은 개념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시나 잠언의 형태로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했지요. 생경한 개념어로 현실에서 떠난 철학은 현실에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밀착된 목소리로 철학할 때 우리 철학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교수는 후설의 주저인 《논리연구》 전3권의 번역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첫권을 펴낼 예정이다. 나아가 동서양의 부정철학을 접목시킨 저술도 구상 중이다.

— 박천홍 기자

## 유럽의 골목골목에서 숨쉬는 만화

《유럽만화를 보러갔다》 펄먼 이동훈씨



이동훈씨(33, 부천시청 문화사업 전문위원)는 학생시절 신문에 기사가 난 적이 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서도 지방 전문대 만화예술과에 재입학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문화기획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장차의 꿈이 만화가였으니 화제거리가 될 만했다.

“물론 아직 만화가의 꿈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화를 천대하는 우리 풍토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만화를 보러 갔다》(교보문고)도 그런 작업의 일환이다. 특히 유럽은 만화를 예술로 인정하는 풍토가 정착돼 있을 뿐더러 만화산업도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다. 독일 만화의 원조격인 빌헬름 부쉬는 회화 명명사전에서 찾을 수 있고, 벨기에의 만화서점 ‘브뤼셀’은 화랑구실까지 한다. 대여점 중심의 만화산업은 꿈도 꿀 수 없다.

“벨기에에서 만화박물관까지 가는 길에서 만난 만화 벽화는 사람과 거리가 거기서 비롯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럽만화는 미학적으로도 참신했다. 일본만화와 미국만화 홍수 속에서 《뉴요커》 등을 통해 간간히 볼 수 있었던 유럽만화는 아무리 뒤져도 자료가 없었다. 95년부터 미술·교양서적에서 자료를 모았는데, 유럽만화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까지 이어져 있었다. 해부학 연구에 몰두해 있던 1490년경에 그린 〈익살그림〉은 확실한 캐리커처다.

근엄한 나라 영국에는 윌리엄 호가스라는 풍속화가 만화의 기원을 이뤘고 5년간 휴간기간을 빼도 그 역사가 150년인 만화잡지 《펀치》가 1817년 7월부터 나오고 있었다. 이 내용을 ‘세계만화기행’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유럽에 직접 간 게 97년이니까, 이 책에는 4년 이상의 세월이 담겨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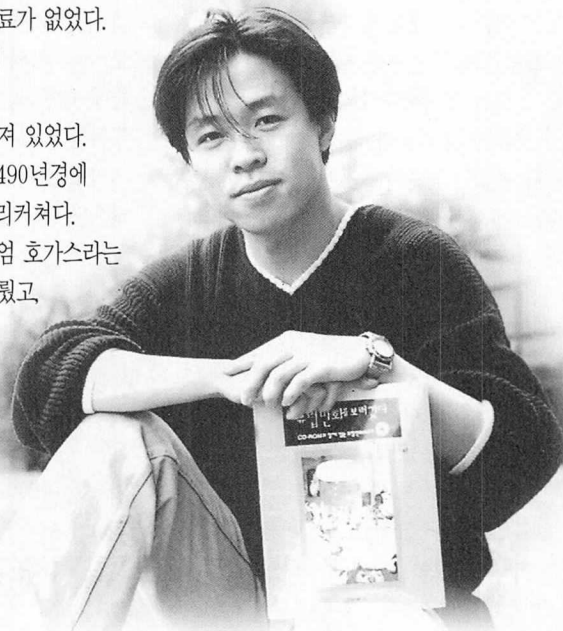
“한달간 유럽을 여행했지만 단편적인 지식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놓치고 온 부분이 많습니다.”

만화가 김수정씨가 봤다는 독일 베른의 만화박물관은 결국 못 찾았고, 로마의 테르미니역에서 우연히 본 포스터 덕분에 ‘로마 엑스포 카툰’을 구경할 수 있었다. 거기서 이현세의 《아마겟돈》을 만났지만 ‘망가 에너지’라는 제목으로 전시되고 있는 일본만화 등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황미나와 이재학, 오세호의 만화를 보고 씩씩해지기도 했다.

“유럽에는 만화축제가 많지만 ‘국제’ 행사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화교류의 장이며 축제공간일 뿐이죠. 우리는 외형에 집착하면서 진짜 만화의 자리는 잊고 있는 듯합니다.”

‘부천시청 정책개발연구원 문화사업 전문위원’이라는 거창한 직함을 갖고 있는 그가 하는 일은 부천이라는 황량한 도시에 사이버만화도시를 세우는 일, 바로 천지창조다.

— 이현주 기자



## 언론과 지식인을 향한 날카로운 붓끝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펴낸 김종철씨



날카로운 붓끝을 자랑하던 김종철씨(56)의 글이 언제부터인가 잘 보이지 않았다. 살다보면 혼란스런 정치적 상황에 개인적 입장이 뒤범벅돼 도대체 무엇이 정정이고 무엇이 허양인지 알기 힘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크게 도움 받았던 글들이라 아쉬움이 많았다. 그는 지금 연합뉴스(옛 연합통신)의 사장으로 재직중이다. 글이 드물었던 까닭도 그 때문이다.

“연합뉴스라는 매체 특성을 파악하고 조직의 민주화와 경영개선을 하는 등의 일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경영을 맡았으니 이에 전념해야겠지요. 통에 글은 영 못 쓰고 지냅니다.”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개마고원)는 15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신문과 잡지에 발표한 칼럼을 모았다. 자유언론실천운동으로 동아일보에서 강제해직되던 1975년 이후, 그의 말을 빌리자면 ‘정치·사회·역사적 문맹’을 깨친 이후,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사실을 물감으로 97~98년 북한의 기근, 남한의 대선과 IMF 사태 등을 사실대로 그리고자 노력했다. 이 그림의 구석구석에 문익환·박현채·안종필·박용수 등 그를 일깨워준 사람들이 숨어 있다. 이 사람들과의 만남과

기자로서 경험은

이 책의 많은 부분에서 언론개혁과 지식인 문제를 다룬 계기가 됐다.

“지식인



문제는 복잡합니다. 스스로 진보적 지식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지역감정 등에 있어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듯 양비론을 통해 정치적 혐오감만을 심어줬죠. 이런 행태라면 진보적 지식인이라 일컫기 어렵죠.”

85년 민주통일민주운동연합에서 대변인과 사무처장을 지내던 시절에 함께 활동했던 많은 진보적 지식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지금, 그런 생각은 더하다. 책에도 여러 차례 언급됐다시피 언론개혁에 대한 그의 견해도 확고하다. 언론민주화 없이는 사회민주화도 없다는 것.

“30여년 언론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언론개혁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개혁이 필요한 곳임에도 쉽게 개혁되지 않는 곳이지요. 정부가 할 수 있는 힘도 한계가 있으니 시민운동이나 언론 자체 내에서 개혁을 이뤄야겠지요.”

그런 점에서 그는 《인물과사상》이나 《판지일보》식의 대안언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책머리에는 86년 5·3사태로 수배받을 당시 치안본부가 압수해간 3권 분량의 문학평론 원고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해직된 이후, 원고지 1장당 120원 받으며 시작했던 50여권 분량의 번역일과 함께 생계를 해결해주던 원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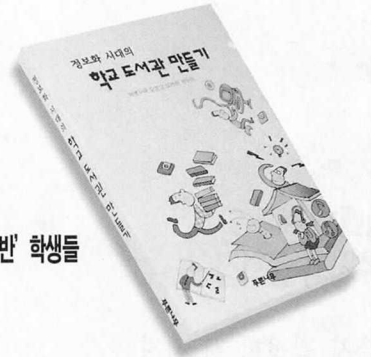
치안본부가 아직 보관하고 있을 리 만무하고 지난 잡지를 뒤져 읽어내고 싶은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다.

“이런 토막 글이 아니라 좀 더 긴 글을 쓰겠다는, 매번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많이 하죠. 하지만 당분간 글과 좀 멀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글쟁이 생활로 돌아간다면 모를까.”

— 김연수 기자

## 학생들이 짓는 미래 '꿈의 도서관'

《정보화 시대의 학교 도서관 만들기》 펴낸 송문고 '책누리반' 학생들



앞으로 학교 도서관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학생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관의 기능을 맡게 될 것이다. 꿈이 아니다. 서울 송문고 '책누리' 학생들은 이런 도서관 짓기의 전범을 《정보화 시대의 학교 도서관 만들기》(푸른나무)에서 보여주고 있다. 도서관을 직접 꾸리며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형 학교 도서관 (<http://members.iworld.net/smhigh/book/index.htm>)의 밑그림을 그린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 학교 도서관을 세운 것은 교육에 꼭 필요한 공간이며, 다가올 정보화 시대에 정보제공처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책누리반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우 학생의 말에서 학교 도서관을 바라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최근 학교마다 책을 많이 읽자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냉랭하다.

“교과과정에 작문·문학시간이 있고 독서시간도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책을 읽지 않는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특히 고학년이 되면 책과 멀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책누리반 12기 이우람 학생의 지적이다.

입시 교육의 그늘에 묻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던 송문고 도서관을 다시 연 것은 지난 89년 도서관 '책누리' 학생들과 지도교사 허병두씨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이제는 정보도서관으로 발전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난해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한 '제1회 전국 도서관 홈페이지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초·중·고교로는 유일하게 입상하기까지 했다. 이 책은 이렇듯 지난 10년간 학생들

스스로 도서관을 가꾸고 꾸며온 과정을 조목조목 활자화한 것이다.

“설문조사를 하고, 항목별로 통계를 내고, 비중 있는 답변을 추려 자료를 모으는 방법으로 글을 썼습니다.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지 않아 애를 태웠습니다.”

책누리 11기 정해룡 학생이 털어놓은 고충이다. 정보도서관을 이루기까지 학생들의 무관심이 더 큰 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송문고 도서관은 다른 학교의 교사와 학생의 견학대상이 될 만큼 알려진 곳이다. 이런 학교에서조차 반응이 미미하다면 다른 곳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책누리반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의 기능이 더욱 다양해지리라는 뜻밖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은 어떤 곳보다 자율적이며 개성을 찾아주는 멋진 곳입니다.”

12기 노웅지 학생이 들려주는 학교 도서관의 미래상이다. 이들은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 도서정보를 가득 채워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학교 도서관의 미래를 보여줄 생각이다.

— 오완진 기자

